



환영사



2014년에 서울의 중심대학인 한성대학교 가족으로 맞이하게 되는 약 1,840여명 새내기 여러분의 입학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귀한 자녀들을 훌륭히 키워 우리 한성대학교에 보내주신 학부모님의 노고와 헌신에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한성가족이 된 새내기 여러분! 여러분은 치열한 경쟁을 뚫고 당당한 서울의 중심대학 대학인으로서 지금 새로운 각오로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대학생활 4년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환기이며, 대학 1학년은 전체 대학생활에서 성공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새내기 여러분에게

자신의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시간을 관리하면서 대학생활을 시작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한성대학교에서 좋은 친구와 훌륭한 교수님들과의 만남을 통해 공부하고, 여러분들의 꿈을 실현시키는 새로운 역사의 장을 만드는 현장이 되길 바랍니다.

새내기 여러분! 우리 한성대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들이 알차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해외인턴십, 교환학생, 어학캠프 등의 다양한 해외교류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취업·창업지원 통합관리 조직을 국

내 대학 최초로 도입하여 학생들의 취업과 창업을 동시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는 junior 고시반 신설, 전공 교수님들과의 mentor 제도를 보장하여 인성 교육 강화 및 취업 진로 지도 등을 배우는 필수과목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이외에도 각종 프로그램과 알찬 제도들을 통해 여러분의 자기발전과 성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우리 한성대학교에서 무한한 꿈을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열정이 성공을 만듭니다. 그러나 순간적인 불타오름, 남에게 피해를 주는 뜨거운 열정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를 가집니다. 인생은 단기 승부가 아니기 때문이고, 인생은 남과 함께 만들어갈 때 비로소 완성되

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새내기 여러분! 여러분의 탁월한 학업성취와 사회에 공헌하는 큰 재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한성대학교 모든 구성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새내기 여러분의 입학을 축하드리며, 여러분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새내기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성대학교 총장 강신일

한성인이 되기 위한 첫 발돋움 '교수님과 함께하는 2014 입학식'

“
입학부터
취업까지
교수와 학생들이
함께한다는
취지로 추진
”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 동안 '교수님과 함께하는 2014 입학식'이 강원도 횡성에 위치한 웰리힐리파크에서 진행된다. '교수님과 함께하는 2014 입학식'은 '신입생 입학식'과 '단과대학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및 '학사협의회'를 통합한 행사이며 올해 처음 시행된다. 이번 행사는 학과 교수님들이 함께하여 신입생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신입생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지시키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교수님과 함께하는 2014 입학식'의 담당자인 조중집(학사지원팀) 차장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라는 말이 있다. 이 말처럼 이번 행사는 입학에서 취업까지 모든 교수님들이 학생들과 함께 입학식을 진행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학교에 좀 더 애착과 소속감을 가지고 학교생활을 하면 한다"고 전했다. 첫째 날인 25일에는 오리엔테이션과 입학식이 진행된다. 오리엔테이션에서는 개회사 및 학교 홍보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각 부서의 역할을 소개한다. 각 부서의 소개로 신입생들은 학교생활을 하는데 있어 도움이 필요할 때 알맞은 부서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오리엔테이션 중간에

돌발퀴즈 시간이 있으며 퀴즈 정답자에게는 소정의 상품이 지급된다. 신입생 환영행사는 외부 공연과 동아리 공연으로 이루어진다. 2팀의 외부 공연팀이 공연할 예정이다. 동아리 공연은 교내 댄스 동아리 'N.O.D'와 민족예술연구회인 '탈패'의 공연이 예정되어 있다. 오리엔테이션과 입학식이 끝난 후에는 학과별 친교시간이 마련된다. 학과별 또는 단과별로 자율적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교수와 신입생 전체가 참여한다. 학과별 친교시간은 신입생들에게 교수와 조교, 전공 소개로 시작된

다. 수강신청을 위한 안내 후 신입생들이 궁금한 점을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다. 둘째 날인 26일에는 야외활동이 진행된다. 야외활동에는 스키, 보드, 곤돌라, 썰매타기 등이 있다. 야외활동이 끝나고 점심식사 후 학교로 이동한다. 지난 19일에는 입학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부모들을 위해 미래관 DLC에서 '2014학년도 신입생 학부모 초청' 행사가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는 신입생 영상편지, 교내 프로그램 소개, 캠퍼스 투어 등으로 이루어졌다.

현정은 기자 hje6757@hansung.ac.kr

행사 일정

| 날짜 | 시간 | 행사내용(1일차) |
|------------|-------------|---|
| 25일 (화) | 08:30~09:00 | 학과별 강의실 집결 후 버스 탑승 |
| | 09:00~12:00 | 학생 출발(학교-웰리힐리파크) |
| | 12:00~13:00 | 학생 도착(방배정 및 김정리) |
| | 13:00~14:30 | 학생 중식 |
| | 14:30~17:00 |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
| | 17:00~17:30 | 신입생 입학식 |
| | 17:30~19:00 | 학생 석식 |
| | 19:00~21:00 | 신입생 환영행사(외부팀 및 동아리 공연) |
| | 21:00~23:00 | ★학과별 친교 시간★ ① 교수&조교소개 ② 학과(전공) 소개 ③ 전공과목 수강신청 안내 ④ 궁금해요?(질의&답변) ⑤ 기타 자체프로그램 진행 |
| | 23:00~ | 취침 |
| 날짜 | 시간 | 행사내용(2일차) |
| 26일 (수) | 07:00~08:30 | 학생 조식 |
| | 08:30~11:00 | 야외활동(스키, 보드, 곤돌라, 썰매, 기타) |
| | 11:00~12:00 | 학생 숙소정리 및 퇴실 |
| | 12:00~13:30 | 학생 중식 |
| | 14:00~16:30 | 학생 이동(식당-학교), 학교 도착 |

※ 행사시간 및 세부적인 사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14년 신입생들에게 '한성대학교'를 말하다

본교 최대 건물 14층 규모의 종합관 들어선다



▲ 올해 6월에 착공하는 신축건물 종합관(가칭)의 조감도이다.

2014년 우리학교가 맞이하는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바로 종합관(가칭) 신축이다. 올해 6월부터 착공에 들어가는 종합관은 연면적 22,971.13㎡로 지상 12층, 지하 2층의 규모를 자랑한다. 본교 건물 중 가장 큰 규모의 건물로 우뚝 설 종합관에는 어떤 시설들이 갖춰질까?

지하층에는 자율적으로 조별공부를 할 수 있는 스테디라운지와 토론·발표를 진행할 수 있는 세미나실, 체육관, 주차장이 들어선다. 체육관은 낙산관에도 위치해 있지만, 우리학교와 이웃해 있는 한성여중과의 공용사용으로 이용에 다소 불편함이 있다. 체육관 시설은 이러한 불편을 다소 해소할 것이다.

지상층은 어떻게 꾸며질까? 지상층에는 강의실, 컴퓨터를 이용한 과제 및 인쇄를 할 수 있는 컴퓨터실습실, 세미나실, 회의실, 식당, 매점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정도영(시설지원팀) 주임은 "종합관은 학생들이 부족하다고 생각

하는 그룹스터디실과 강의실을 중심으로 설계중이다. 편의시설로 카페, 셀러드 바 등 학생들의 휴식공간도 넓힐 계획이다"고 전했다.

종합관은 2016년 완공을 목표로 2년간 공사가 진행된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종합관 공사는 미래관 옆에 위치한 대운동장 지면 일부를 사용하므로 공사기간 동안은 운동장을 사용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총학생회와 학교 측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강신일 총장은 "종합관은 교내에 부족한 시설을 보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사 확보율을 84.7%에서 107.4%로 상승시킬 수 있다. 이는 대학인증평가에서 우리학교가 높은 점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합관의 탄생은 학생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교육의 질을 개선해, 향후 본교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바이다.

'2013년 대학기관평가인증'에서 모범대학으로 선정되다

한성대학교가 '2013년 대학기관평가인증'에서 인증을 받고 모범대학으로 선정되었다. 2013년 대학기관평가인증의 평가를 받은 96개의 학교 중 87개 학교가 인증을 받았다. 인증대학 중 17개 학교가 모범대학으로 선정되었는데, 본교가 그 중 한 학교로 당당히 자리매김 한 것이다.

대학기관평가인증 제도는 교육수요자에게 대학 교육의 질을 보증하고, 대학의 지속적인 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2011년 처음 도입되었다. 대학이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대학운영 전반을 심사해 사회적인 공신력을 부여한다. 평가

는 매년 신정대학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국내의 모든 4년제 대학들은 5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대학기관평가인증을 받아야한다.

인증대학으로 선정되면 사회적 신뢰를 획득함으로써 대학의 대외 이미지가 개선된다. 더불어 교육의 질을 보증해 줌으로써 취업의 문이 넓어진다. 만약 인증대학으로 선정되지 못하면 정부로부터의 행정적 지원에 제한을 받는다.

대학기관평가인증은 교육부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에 위탁했다. 실질적인 평가는 대교협의 부설기관인 한국대학평가원에서 실시한다.

대학기관평가인증의 평가는 대학사명 및 발전, 교육, 구성원, 교육시설, 재정경영, 사회봉사 총 6개의 영역으로 진행된다. 대학기관평가인증 현장평가단이 우리학교를 방문했을 당시 교육과정의 탄력적인 운영, 연구력에도 높은 애교심, 지도상담과 개인진로 상담이 본교의 강점으로 뽑혔다.

또한 최대 5학점까지 사회봉사학점 취득이 가능한 점과 재정편성 및 집행·감사 부문도 호평을 받았다. 특히 도서관 개방 등 지역주민을 위한 서비스는 모범 사례로 꼽혔다.

역사·행정학, 전국대학평가 10위권 안에 들어

| 순위 | 행정학 | 역사학 |
|----|-----------|----------|
| 1 | 대구대학교 | 한국의국어대학교 |
| 2 | 영남대학교 | 경희대학교 |
| 3 | 명지대학교 | 동국대학교 |
| 4 | 조선대학교 | 중앙대학교 |
| 5 | 경상대학교 | 안동대학교 |
| 6 | 군산대학교 | 한성대학교 |
| 7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단국대학교 |
| 8 | 한성대학교 | 성균관대학교 |
| 9 | 서울대학교 | 전주대학교 |
| 10 |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대학교 |
| 11 | 계명대학교 | 고려대학교 |
| 12 | 꽃동네대학교 | 연세대학교 |
| 13 | 부산대학교 | 전남대학교 |
| 14 | 한남대학교 | 충남대학교 |

한국연구재단에서 발표한 '학문분야별 전국대학평가'에서 한성대학교가 역사학 6위, 행정학 8위, 사회학 18위로 20위권 안에 들었다. 이 발표는 작년 9월 23일자 동아일보 신문에 실리며 대학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본교 역사학과 행정학은 '서울대학교'보다도 우위에 있어 큰 의미를 주는 발표였다.

뿐만 아니라 '학문분야별 영향력 학자'에는 행정학분야 2위 이종수(행정학과) 교수, 경제학분야 6위 박승록(경제학과) 교수, 한국어와 문학분야 13위 김동환(한국어문학부) 교수가 순위에 올라 한성대학교를 더욱 빛냈다.

'학문분야별 전국대학평가'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이하 KCI)에서 'KCI를 통하여 본 우리나라의 현주소'라는 정책 세미나에서 발표된 자료이다. 전국대학평가의 우선 각 학문분야 별로 영향력 있는 상위 100위 이내 교수들의 지표를 만든다. 이후 그 지표를 토대로 각 대학교의 순위를 매긴다.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은 국내학술지를 대상으로 인용 통계 서지정보를 제공하는 전문정보서비스이다.

경영학부, UTD 대학평가에서 국내순위 7위 기록해

| Rank | University | Articles | Score | Country |
|------|---|----------|-------|---------|
| 1 | Korea University | 34 | 12.39 | Korea |
| 2 | Yonsei University | 14 | 4.73 | Korea |
| 3 | Seoul National University | 12 | 4 | Korea |
| 4 |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KAIST) | 6 | 2.67 | Korea |
| 5 | Chung-Ang University | 3 | 1.33 | Korea |
| 6 | Ewha Womens University | 2 | 1.25 | Korea |
| 7 | Hansung University | 4 | 1.12 | Korea |
| 8 | Ulsan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 2 | 1 | Korea |
| 8 | Aju University | 1 | 1 | Korea |
| 10 |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 1 | 0.33 | Korea |
| 10 | Konyang University | 1 | 0.33 | Korea |
| 10 | Hong Ik University | 1 | 0.33 | Korea |
| 10 | Kyung Hee University | 1 | 0.33 | Korea |

우리학교 경영학부는 UTD(The UT Dallas' Naveen Jindal School of Management)에서 진행된 대학평가에서 국내 순위 7위를 기록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UTD는 미국의 Financial Times, 영국의 Times에 이어 세계 3대 경영대학 평가 기관 중 하나이다. 재무, 회계, 인사, 생산, MIS, 마케팅, 국제경영 등 각 분야별 최고의 권위가 있는 24개의 저널들에 발표된 연구 논문들을 기준으로 전 세계의 대학을 평가한다.

우리대학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진행된 UTD 대학평가에서 국내 대학 중 7위, 세계 대학 중 337위를 기록했다. 이형용(경영학부장) 교수는 "UTD는 논문 실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 우리 학부 교수님들이 질 높은 연구와 더불어 좋은 논문을 많이 게재하셔서 이런 성과를 거둔 것 같다"고 말했다.

국내 수많은 대학교를 제치고 7위라는 높은 순위를 기록한 만큼, 본교 경영학부 재학생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준 계기가 되었다.

2013년 한성의 영웅들

'대한민국 대학생 광고경진대회'에서 대상 수상

'2013 대한민국 대학생 광고경진대회(이하 KOSAC)에서 '군단의 심장'팀(한성대 학생 3명, 성균관대 학생 1명)이 대상을 수상했다. KOSAC은 한국광고협회가 주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광고계 산학협동 프로그램이다. 군단의 심장팀은 소비자들의 마음에 접근하는 'Journey is Near'이라는 컨셉을 잡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대학생 앱 개발 챌린지대회'에서 장관상 수상

본교 컴퓨터공학과 학생들로 이루어진 'Late But Lucky'팀이 미래창조과학부와 여성가족부가 공동 주최한 '제1회 전국 대학생 앱 개발 챌린지(K-해커톤) 대회'에서 최우수상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실내건축대전'에서 대상 수상

'제25회 대한민국 실내건축대전'에서 하 실내건축대전에서 장동욱(인테리어 4) 학생의 작품 '여유공간'이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실내건축대전은 한국실내건축협회와 KCC가 주최하는 대회로 인테리어 공모전 중 가장 권위가 있는 대회이다.

이외에도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금상, UCC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작년 한 해, 한성인들은 각종 대회와 공모전에서 맹활약을 펼쳤다. 2014년도에도 본교 학생들의 활약이 기대된다.

김경연 기자 kc2120@hansung.ac.kr

수강신청 성공의 체크리스트

1. 시간표를 잘 때는 Plan B는 필수!

수강신청 전에 시간표를 짜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 수강신청을 자신이 짠 시간표대로 한다면 금상첨화겠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Plan B를 세워야 한다.



2. 학점은 되도록 꼭 채워서 시간표 짜기!

졸업하기 위해 우리가 수강해야 하는 학점은 총 140학점. 1학년 때부터 20학점씩 꼭 채워서 신청하는 것이 나중에 편하다는 사실. 1학년 때 꼭 채워 놓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걸.

3. 수강신청 전에는 C++C, C++V 연습!

수강신청 스킬 중에는 C++C, C++V 빠르기는 광속클릭 다음으로 중요한 기술. 그러므로 수강신청 전 C++C, C++V연습을 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손해. 마우스 우측클릭을 사용할 수 없으니 실전에서 분명히 당황할 수 있다.

4. 수강신청 5분 전부터 준비태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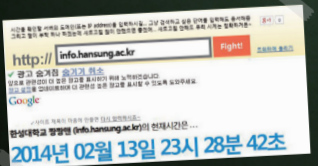
수강신청 5분 전부터 메모장에 과목코드 입력. C++C, C++V연습을 실전에 쓰기 위한 준비태세이다. 또한 우리학교는 중복 로그인 금지이기 때문에 수강신청 시 밀릴 수 있는 건 나의 손뿐. 수강신청 1분 전부터 광클태세 돌입. 손이 빠른 자가 수강신청을 지배한다!

8. 이미 신청되어 있는 강의는 절대 취소 금지!

수강신청을 하다보면 이미 신청 되어 있는 과목이 있을 것이다. 대부분 자신의 전공필수이거나 모든 신입생이 수강해야 하는 '대학과 지성'이다. 그러므로 신청되어 있는 과목을 취소하고 수강신청하라.

5. 종합정보시스템 서버시간을 간파하라!

수강신청의 성공을 좌우하는 것은 바로 빠른 접속. 빠른 접속을 위해 광클도 중요하지만 서버시간을 정확히 알아야 더 빠른 접속이 가능하다는 사실. 누구보다 정확하게 정시에 접속을 원하는 자 <http://time.navajism.com>를 이용하라.



6. 핵심교양을 먼저 신청하라!

핵심교양을 수강해야만 졸업이 가능하다는 사실. 하지만 핵심교양 강의 수도 적고 1학년 때부터 수강할 수 있는 인원은 적어진다. 그러므로 자리가 많은 1학년 때 들어야 남은 학기의 수강신청이 편하다는 사실. 특히 신청할 때는 핵심 A보다 핵심 B를 먼저 신청할 것을 유념해 둘 것. 핵심교양을 살피겠다고 좌절하지 말고 가끔 몇 자리 씩 생겨나는 정정기간의 빈자리를 주시하도록!

7. 분반을 제대로 입력하라!

과목코드 이외에도 분반 입력은 필수. 분반 입력을 하지 않는다면 수강신청을 할 수 없으니 유념해 두자. 원본은 C++C, C++V; 오름순은 분반의 알파벳 키보드 위에 가 있도록!

대학생활의 꽃, 동아리



공연예술 동아리

왕산악: 메탈 동아리/ 한음: 클래식기타 연주 동아리/ TRIAX: 록인음악 공연 동아리/ HYCO(실내악단): 관현악단 동아리/ NOD: 댄스 동아리/ 들불: 한성대 민중노래패/ 민족예술연구회: 탈춤, 마당극, 풍물 활동 개최/ 극예술연구회: 연극 동아리/ 낙산극회: 연극공연 동아리

평면예술 동아리

P.I.G: 사진 동아리/ 이무기: 문학 동아리/ 유쾌꽃: 미술 동아리/ 매니저: 만화 동아리/ 영화다숨: 16mm 필름 제작 동아리/ DMANIA: 광고 동아리/ 한성타이포: 타이포그래피와 글꼴을 연구, 디자인

학술 동아리

H-LEP: 영어회화 동아리/ TIME: 영어학술 동아리/ 셀들: 토론 동아리/ VISION: 벤처 창업 동아리/ 경제학연구회: 경제학 연구 동아리/ FLASH: 주식투자, 금융권취업 관련 동아리

종교 동아리

CCC: 캠퍼스 예배 및 아침기도모임/ CAM: 대학선교회/ UBF: 일대일 성경공부/ 한불화: 불교 동아리/ 로사리오: 가톨릭 동아리/ JOY 선교회: 해외선교 및 성경공부/ IVF: 복음전도 및 선교활동

체육 동아리

HTM: 테니스 동아리/ TURTLES:아구 동아리/ UP: 농구 동아리/ 피닉스: 패러글라이딩 동아리/ 버팔로: 축구 동아리/한경회: 검도 동아리/ 한얼: 태권도 동아리

취미·봉사 동아리

바둑사랑회: 사바둑 동아리/ 유스호스텔: 여행 동아리/ 해방사리우: 봉사 동아리/ RCY: 대한적십자 동아리/ 별조각: 아마추어 천체관측 동아리

알찬 대학 생활을 위한 한성인 공모전/대회 체크리스트

큰 꿈과 부른 마음으로 입학한 그대.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 그래서 준비했다. 한성대학교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공모전과 대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주목하라.

<프레스센터 주최 공모전/대회>

- 사진공모전/한성문학상 현상공모전**: 상금과 총장상을 받기 위해 철저한 준비와 노력으로 많은 한성인들이 노리는 한성대 신문사 주최의 큰 행사이다. 사진 공모전은 전문 사진작가에게 심사를 받아 치열한 점수를 펼치고, 한성문학상은 신춘문예를 받듯 한다.
- 영어스피치대회/영어수필대회**: 한성대 영자 신문사인 한성TO DAY에서 주최하는 대회로 영어 실력 향상과 함께 상금과 상장까지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

낙산가요제/한성대 영상제

: 한성대 방송국 HBS에서 진행되는 두 행사. 축제 때 진행되는 낙산가요제는 초청가수와 함께하고 영상제에는 다양한 경품이 기다리고 있다.

<교내 주최 공모전/대회>

- 한성인 글쓰기 대회/한성인 프레젠테이션 대회**: 교양필수 (사고와 표현) 때 배운 내용을 실전 대회에서 시험 해 볼 기회
-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우.가.게 프로젝트**

<교환학생/해외 인턴십>

- : 지원금으로 다양한 창업 아이템을 실현하고 수익에 따라 상금까지 거머쥌 수 있다.
- <교환학생/해외 인턴십>**
- 교환학생/해외인턴십**: 더 넓은 세상에서 활약하고 싶은 한성인이자 3월에 진행되는 교환학생 설명회를 기억하자.
- <기행/탐방>**
- 국토테마기행단/한성문화탐방기행단**

국토테마기행단은 국내를 한성문화탐방기행단은 해외를 탐방한다.

공부 이외의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다면 꼭 참여하기를 바란다. 기행을 마친 후 다양한 선/후배와 교류 하는 것은 옵션이다.

Hansung Success Frontier: 해외 탐방의 기회, 대기업의 대외 활동에서만 찾지 마라! 단순한 기행이 아닌, 철저한 사전 조사와 기획을 통해 특정 주제와 관련한 선진 기관을 탐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한재원 기자 1236047@hansung.ac.kr

한성대 캠퍼스 지도

부품 기대를 안고 시작한 대학 생활. 한성대 캠퍼스가 새내기에게 낯선 곳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이 기쁨을 준비했다.
이 친절한 캠퍼스 지도와 TIP을 들고 우리의 캠퍼스를 한번 돌아다녀 보길.

문화부 기자 오영림 1233075@hansung.ac.kr
일러스트 이선미

*학교 캠퍼스 생활요령

- 우촌관 대부분의 학교행정실과 과사무실, 총장실 등이 있다. 등문과 연결된 1층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며, 2층은 미래관 지하와 이어져 있어 넓은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다. 종합행정실을 둘러싼 우촌관을 자주 찾게 돼 교육정책실, 학생증(제발급), 수강신청 문의 등으로 갔었는데, 여러 부서가 종합행정실로 한 데 모여 있어서 일이 많았는데 수월하게 금방 해결됐다. 아, 종합행정실에서 해결할 수 있는 수강신청 문의는 전공과는 인디고 교양강의만 되니까, 신입생들은 유의해두면 좋겠다. (오영림 2학년)

- 진리관 일반강의실과 패시디자인전공 실습실 외에 제본실 학생회실이 있다. 수업시간에 학생회에서 시험응원 차 간식배부, 무료인쇄소 등을 운영하기도 한다. 그리고 학기 초에는 제본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복사나 제본할 것을 미리 맡겨 놓는 편이 좋다.

진리관에는 엔지니어가 없어, 그리고 일반강의실은 내용이 진리관에 수업 등와 같다. 다른 수업 때보다 부지런히 강의실로 출퇴근할 바래. 그리고 진리관에는 화장실의 층 배고 강북 타 한 층에 남자화장실이나 여자화장실 하나만 있어, 당황하지 말고 알아둬. (이소연 2학년)

- 탐구관 강의실과 컴퓨터실습실로 이루어져 있다. 컴퓨터 실습실에서 실습수업도 진행되지만 자유롭게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고 인쇄도 가능하다. 컬러인쇄기가 가능한 지리는 한정적으로 지리가 표시되어 있다.

나는 대학 생활의 강의를 탐구관에서 듣고 있어 새내기들도 탐구관에서 기초강의를 들을 것 같은데 지하에 대전이 있으니까, 쉬는 시간에 추다닥 잘 이용해야. (송혜연 2학년)

- 연구관(동) 교수연구실이 있는 건물이다. 경사에 위치해 있어 운동장과 마주한 입구는 건물의 지하 1층이다. 연구를 찾아가기 이전에 미리 호수를 알아가는 것이 좋다.

교수와 상담이 있어서 연구중에 찾은 적이 있어, 교수님께 불만이 있으면 가는 건물이라 할 수 있지. 새나기가 알 아셨으면 하는 건, 무척대교 연구실을 찾는 것보다 사전에 연락을 드리고 약속시간을 잡은 뒤에 찾아가야 된다는 거야. (남홍 2학년)

- 창의관 화과사람들이 많이 찾는 건물 중 하나로 교내식당, 학생지원팀, 건강관리실, JOB 카페, 학생회실, 소강당 등이 있다.

처음에 화식 먹으며 자주 가면 건물인데 알고 보니 이 건물이 창의관이라 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잡거기 몸이 아플때 대학교에 는 보건실 없나 한거야. 건강관리실을 찾아가봐. (이은주 2학년)

- 인성관 동아리 건물로 불리며 창의관과 5층 강연장으로 연결되어 있다.

인성관이 창의관 뒤에 철벽 붙어있어서 창의관을 통해 인성관을 가는 게 꽤해 처음엔 헷갈릴 수도 있는데 몇번 왔다갔다 하면 5층 자이도 익숙해져서 자이소에 엔지니어가 있을 수 있을꺼야. (최보성 2학년)

- 공학관A, B 두 공대 건물이 공학관A와 B로 이어져 있다. 각 소스에 따라 실습실이 나뉘어 있고 프린트 사용, 이용 시간 등이 다르다. 테니스장, 낙산공원과 가깝다.

공대 특성상 남자가 많고, 테니스장이 가깝기도 해서 공대사람들이 테니스를 많이 치는 것 같아. 학부위에서 테니스공이랑 용품을 빌려주니까, 공학관으로 올라와서 쳐보는 건 어때. (이성규 2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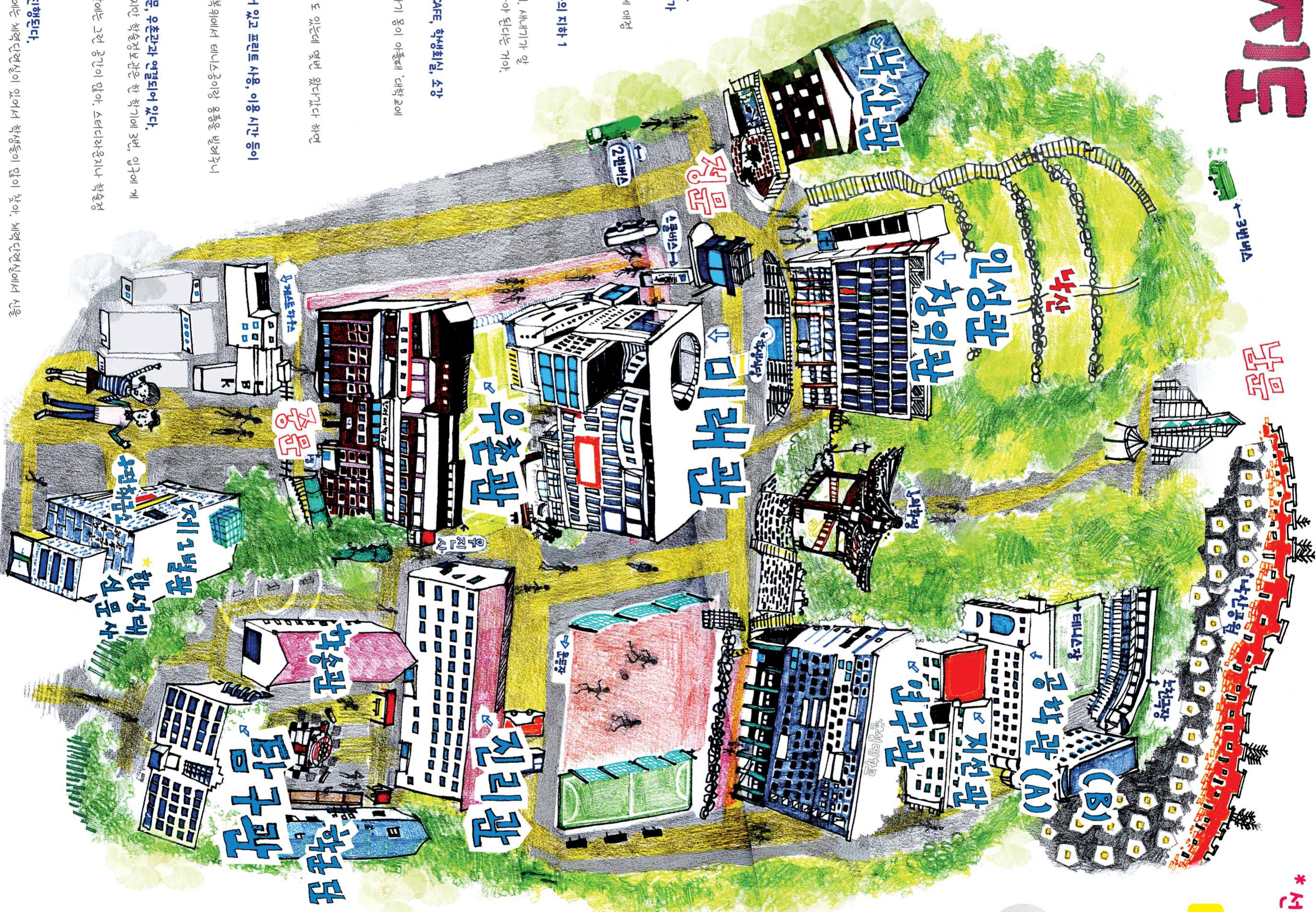
- 미래관 학술정보관과 실습실, 열람실, 강의실, DIC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가장 큰 건물로 중문, 우촌관과 연결되어 있다.

학술정보관과 열람실을 이용하려면 학생증이 필수야. 학생증을 인식해야만 입구에 문이 열려주는 하지만 학술정보관은 한 학기에 3번, 입구에 가는 시는 각인 분야에 서적을 예기하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알아둬. (이희영 2학년)

학교생활을 하다보면 조별과제나 스터디처럼 열람실 말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할거야. 미래관에는 그런 공간이 많아. 스터디라운지나 학술정보관의 각 층마다 있는 스터디홀도 있어. (최은지 3학년)

- 낙산관 대강당, 체육단련실, 예대 실습실 등이 있다. 교내의 주요행사도 주로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새나기라면, '대학교지식' 교양수업을 들으며 낙산관 대강당에서 수업을 듣게 될거야. 그리고 낙산관에는 체육단련실이 있어서 학생들이 많이 찾아. 체육단련실에서 신을 신어보는 예나니까. 예나 챙겨서 한번 돌려봐. 원만한 웰스컴포드 좋아. (이소연 2학년)



* 선배들의 새나기를 위한 애정어린 TIP TALK

가자
새내기 후배들에게 학교생활 하는데 조언 한마디씩 해주세요!

공대아들

음. 매점은 창의관, 탐구관, 공학관에 있고 카페 그라찌에는 공학관, 미래관에 있어. 공학관 카페가 조금만 편이야.

한내기

주간 수업의 쉬는 시간은 10분, 야간 수업의 쉬는 시간은 5분이야.

홍아

교내 행정업무는 6시에 끝나니까, 그전에 서두름.

공대아들

우리 학교에 교육장학금있는거야?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2학년까지는 최대 50만원 지급된다. 교육장학금을 타려면 기간을 엄수하는 게 제일 중요하더라. 장학금 신청하거나 관련서류를 제출하는 기간도 꼭 지켜야 된단다.

선배오빠

한성엔 토폴로그래에 멘토로 참여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거야. 선배인 멘토가 너가 수강하는 강의에 대해 큰 도움이 될 수 있어.

한내기

우촌관과 진리관 사이를 '우진사'라고 부른다는거.

공대아들

수강신청 전에 해당 강의의 강의계획서를 꼭 봐야한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복학생형

낙산공원은 커를전공이야. 물이끼 오빠랑 싸서하고 커를 전공에 입성해 볼꺼~ 오 담당~ 오

홍아

과제를 하는 데 노트북이 필요해? 미래관 지하 1층 기자 재데어실을 찾아가봐. 아! 신분증처럼 학생증도 가져고.

한내기

어라 비가 오네? 우산이 필요하다면 창의관 2층에 학생복지위원실에 문의해보라는거.



HANSUNG UNIVERSITY Press Center



**“여기는 자유의 소리 · 진실의 소리
한성대학교방송국입니다”**

여기는 자유의 소리 진실의 소리 한성대학교방송국입니다.
봄의 캠퍼스는 참 따뜻하고 설레는 분위기로 가득합니다.
그 중심에는 14학년 신입생 여러분들이 있겠죠.

대학 생활에서 이렇게 가볍고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습니다.

방송에 대한 꿈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한성대학교방송국에서 함께 만들어 가면 되니까요.
본날의 캠퍼스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방송국장
정시원(영문인)



편집국장
한재원(행정인)

한성대신문

“발로 뛰는 열정, 언론의 중심 한성대 신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14학년 새내기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가 꿈을 한성대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새내기 여러분의 마음 속 두근거림은 어느 봄의 꽃보다 더 활짝 만개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기된 두 뺨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 역시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한성대 신문사는 1976년 창간 이후 한성대학교에서 가장 유서 깊은 언론사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한성대학교의 역사이자 기자들의 열정의 산물입니다.

학내 소식과 사건 · 사고, 대학생활의 다양한 사회 활동, 그 밖에는 한성대 신문사가 있었습니다. 학내 뉴스뿐만 아니라 사회 이슈, 문화 비평, 학술 동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를 취재하고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전하는 것이 저희 한성대 신문사의 사명입니다.
저희 한성대 신문사는 여러분의 열정을 기다립니다. 발로 뛰는 열정, 다음은 당신입니다.



편집국장
이진솔(경영인)

**“진리(眞理) · 지선(至善)을 교훈으로 하는
한성인 여러분! 환영합니다”**

HANSUNG TODAY 편집국장 이진솔입니다.
교내의 소식을 전하고 이슈를 터뜨려 대학생들의 현실을 건넌하고 미래를 만드는 곳.
바로 HANSUNG TODAY입니다.
국제화를 지향하는 대학답게 영문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누구보다도 새내기 여러분의 참여를 희망합니다.

한성인이 되신 새내기 여러분!
우리 한성대 프레스센터와 함께 꿈을 키우고
진정 사회에 기여하는 건강한 인재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